

제주도 도서지역어의 생태학적 연구*

- 우도·비양도·가파도·마라도의 어촌생활어를 대상으로

김 순 자**

I. 서론

II. 제주도 도서지역의 항목별 조사 어휘

III. 제주도 도서지역의 어촌생활어 생태 지수

IV. 결론

국문요약

이 논문은 우도·비양도·가파도·마라도 등 제주도 안의 4개 도서를 3지점으로 나누어 어촌생활어를 생태학적으로 조사, 연구한 것이다. 조사된 어휘 가운데 바다동물 관련 35개 어휘와 바다식물 관련 16개 어휘 등 51개 어휘를 포함하여 총 8개 분야 106개 어휘에 대하여, 생태 측정을 위한 설문지가 작성되었다. 설문 조사는 30·40대, 50대, 70대 이상 등 3세대로 나눠 실시하였다. 30대와 40대를 묶어서 조사한 것은 조사 지점이 도서지역이어서 30대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5C-A00405). 이 과제는 당초 ‘제주도 도서지역어의 생태학적 연구-우도·비양도·가파도·마라도의 해산물을 대상으로’라는 제목으로 수행된 것을 연구과정에서 연구 대상을 넓힘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하여 논문 제목의 부제 가운데 ‘해산물’을 ‘어촌생활어’로 바꾸었다. 여기에서 제주도는 행정 구역으로서의 제주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 제주대학교 강사. 국어학.

조사 결과, 70대 이상 응답자들은 51개의 해산물 관련 어휘 중 52.9%인 27개 어휘에서 방언형을 100% 쓰고 있으나, 50대에선 29.4%인 15개 어휘, 30대에선 11.7%인 6개 어휘만 방언형을 쓰고 있다. 생태 지수가 50% 이하인 어휘는 70대 이상에서 13.7%인 7개 어휘이고, 50대에서는 5.9%인 3개 어휘, 30·40대에서는 27.5%인 14개 어휘로 나타났다. ‘이해하지 못하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을 보인 어휘는 70대에서 ‘듬북’ 외 6개 어휘, 50대에선 ‘보제기’ 외 9개 어휘로 나타났다. 30대에서는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응답한 어휘가 72.5%인 37개나 되었다.

위의 결과를 보면, 세대가 낮을수록 ‘모르겠다’는 응답자가 많아 생태 지수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해당 지역의 30대·40대 인구 비율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이들 세대가 어로 활동과 관련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언어 사멸 속도를 빠르게 하고 있다. 따라서 사멸되거나 사멸의 길을 걷는 어촌생활어는 물론 환경 등의 변화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제주도방언의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제어 : 제주도, 도서지역어, 생태 지수, 어촌생활어, 우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I. 서론

1. 연구 목적

어촌생활어¹⁾는 어촌 지역의 생활 문화를 담고 있는 말이다. 여기에는 어촌 지역의 환경, 전통사회, 경제, 문화 활동과 연계된 어휘, 표현이 들어 있고, 또한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수많은 문법적인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어촌 사회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경제 형태의 변화는 이와 관련된 어촌생활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존 형태와는 다른

1) ‘어촌생활어’라는 용어는 국립국어원이 ‘민족생활어 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어촌 지역의 ‘민족생활어 조사’를 하면서 쓰기 시작했다. 이 글에서는 국립국어원의 ‘민족생활어 조사’의 용어를 원용하였다.

형태로 바뀌고 있다.²⁾ 따라서 본 연구는 언어생태학의 입장에서 제주도의 부속도서³⁾인 우도·비양도·가파도·마라도 등 4개 도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어휘에 대한 인지도를 세대별로 조사하여 그 사용 지수를 측정하는 한편 세대별 변화 요인을 고찰하려고 한다.

언어도 유기체와 같아서 생성, 성장, 사멸의 과정을 거친다. 생물학적 다양성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논리는 언어에도 적용된다. 생태학적 사고를 언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생태학적 문제와 다양성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생태학적 문제는 단순히 개개의 생물 종들이 그 자체로 흥미롭다거나 가치가 있다는 말이 아니다. 생태계의 전체 개념은 살아 있는 개체는 상호 연계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존재한다는 통찰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⁴⁾ 언어가 처한 상황은 안전, 위기, 사멸 등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여기에 빈사상태를 추가하기도 한다. 빈사상태는 하나의 언어가 ‘단순히’ 위기에 놓인 단계를 훨씬 넘어서는 개념을 나타낼 수 있다. 세대 간의 전달이라는 인자가 고려되기 때문이다.⁵⁾ 생태학의 개념을 언어에 적용한 것은 1970년 독일의 언어학자 Einar Haugan의 ‘언어의 생태학’이라는 제목의 강의 내용을 2년 후 자신의 논문집에 이 이름을 붙인 데에서 비롯되었다⁶⁾.

제주도 도서지역인 우도·비양도·가파도·마라도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도 자연 환경·인문 환경·사회 환경 등의 변화로 말미암아 전래되던 도서지역어가 세대가 낮을수록 급속도로 사멸하거나 사멸의 길을 걷고 있어 생태학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토착어인 제주지역어

2) 강정희 외(2011), 『2010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5』(어촌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국립국어원·한남대학교, 3쪽.

3) 제주특별자치도의 부속도서 가운데 추자도는 행정구역이 제주특별자치도에 포함되지만 언어환경이 전라도와 비슷하여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 데이비드 크리스털/권루시안 옮김(2005), 『언어의 죽음』, 이론과 실천, 55쪽.

5) 위의 책, 34-35쪽. 이 책을 참고하면, 마이클 크라우스는 언어를 ‘안전, 위기, 사멸, 빈사상태’ 등 4분류로 나누고, 킹케이드는 ‘생존 가능한 언어, 생존 가능하지만 작은 언어, 위기에 처한 언어, 거의 사멸한 언어, 사멸한 언어’ 등 5단계로 분류한다. 스티븐 워튼은 ‘잠재적 위기 언어, 위기에 처한 언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언어, 빈사 상태인 언어, 사멸한 언어’ 등 5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6) Alwin Fill(1993)/박육현 역(1999), 『생태 언어학』, 한국문화사, 12-13쪽.

를 제보해 줄 제보자들은 물론 도서지역에서 생활하는 젊은 세대들의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것도 이번 연구를 촉발하게 한 이유다. 제주도 도서지역의 어촌생활어의 생태학적 연구의 필요성은 이미 제주대학교국어상담소⁷⁾·국립국어원(2008)의 『제주지역어 생태 지수 조사』와 제주대학교국어문화원 등(2010)의 『제주도민의 제주어 사용 실태 조사』에서 제기되었다. 두 조사 결과는, 제주지역의 농업 관련 어휘 못지않게 어업 관련 어휘도 상당히 위협에 처해 있을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여 제주도 대표 어촌지역인 도서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2. 연구 범위와 방법

1) 조사 지점 개관과 인구 현황

이 연구는 우도·비양도·가파도·마라도 등 제주도내 4개 도서를 3지점으로 나눠 진행되었다. 우도는 제주도 동쪽 바다에 위치한 섬으로 성산포항에서 3.8km 떨어진 섬이다. 주민 대부분이 반농반어 생활을 하고 있다. 관광지의 특성상 식당 운영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다. 나이 많은 층에서는 아직도 바다생활과 밭일 등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 우도는 천진리·서광리·조일리·오봉리 등 4개 행정마을에 12개 자연마을이 있다. 2013년 1월 1일 현재 1601명(남 812명, 여 789명)⁸⁾의 주민이 살고 있다.

비양도는 한림읍 북방 4km 지점 해상에 화산이 폭발하여 생긴 섬이다. 예전에는 반농반어 생활을 하였으나 지금은 주민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71세대 171명(남 82명, 여 89명)⁹⁾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주민들은 주거지를 비양도가 아닌 한림리와

7) ‘제주대학교국어상담소’는 국어기본법의 개정과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운영 개정에 따라 2008년 7월 14일 명칭이 ‘제주대학교국어문화원’으로 변경되었다.

8) 세대별로 보면, 0~9세 101명(남 50명, 여 51명), 10~19세 143명(남 76명, 여 67명), 20~29세 155명(남 88명, 여 67명), 30~39세 198명(남 130명, 여 68명), 40~49세 245명(남 145명, 여 100명), 50~59세 243명(남 138명, 여 105명), 61~69세 208명(남 99명, 여 109명), 70~79세 202명(남 67명, 여 135명), 80대 이상 106명(남 19명, 여 87명)이다.

9) 세대별로 보면, 0~9세 12명(남 6명, 여 6명), 10~19세 13명(남 8명, 여 5명),

협재리 등지에 두는 경우가 많아 섬 안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

가파도는 모슬포항에서 5.5km 떨어져 위치한 섬으로 주민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경작지가 있는 사람들은 농사도 짓고 있다. 2013년 1월 1일 기준 122세대에 246명(남 128명, 여 118명)¹⁰⁾이 거주하고 있다. 마라도는 1981년 4월 1일 행정구역을 가파리에서 분리하였는데, 2013년 1월 1일 기준 47세대에 90명(남 53명, 여 37명)¹¹⁾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도서지역의 인구를 연령별로 보면, 제주지역어를 구사할 수 있는 80대 이상이 비중이 높은 데 반해 젊은 층으로 갈수록 인구수가 적은 것은 언어 전승에 단절이 올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한편 2002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제주도의 총인구는 576,156명(남 288,152명 여 288,004명)이며, 80대 이상은 전체 인구의 2%인 14,536명이다.

2) 기초 조사 방법과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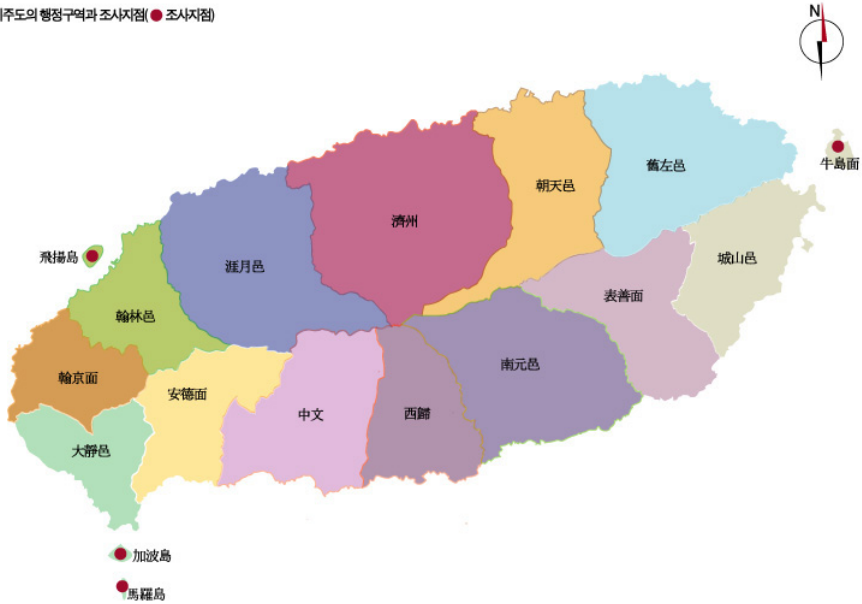
이 연구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진행되었다. 제주도 도서지역인 우도·비양도·가파도·마라도 등 4개 도서를 3지점으로 나눠 어촌 생활에 관련 어휘를 세대별로 조사한 후 인지도를 측정하여 생태학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는 1차 기초 조사, 2차 설문 조사 등 2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20~29세 19명(남 10명, 여 9명), 30~39세 16명(남 9명, 여 7명), 40~49세 23명(남 15명, 여 8명), 50~59세 38명(남 20명, 여 18명), 60~69세 22명(남 11명, 여 11명), 70~79세 16명(남 3명, 여 13명), 80대 이상 12명(여 12명)이다.

10) 세대별로 보면, 0~9세 10명(남 7명, 여 3명), 10~19세 14명(남 5명, 여 9명), 20~29세 25명(남 13명, 여 12명), 30~39세 23명(남 16명, 여 7명), 40~49세 32명(남 18명, 여 14명), 50~59세 49명(남 31명, 여 18명), 61~69세 35명(남 17명, 여 18명), 70~79세 45명(남 18명, 여 27명), 80대 이상 13명(남 3명, 여 11명)이다.

11) 세대별로 보면, 0~9세 5명(남 3명, 여 2명), 10~19세 7명(남 5명, 여 2명), 20~29세 4명(남 3명, 여 1명), 30~39세 9명(남 5명, 여 4명), 40~49세 23명(남 17명, 여 6명), 50~59세 17명(남 10명, 여 7명), 61~69세 13명(남 5명, 여 8명), 70~79세 10명(남 4명, 여 6명), 80대 이상 2명(남 1명, 여 1명)이다.

제주도의 행정구역과 조사지점(● 조사지점)



<그림 1> 제주도의 행정구역과 조사 지점

1차 기초 조사는 어휘 자료 수집을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어휘 자료 수집을 위한 기초질문지가 구술 채록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예를 들면, 질문 문항은 “이 동네서 나는 바닷동물과 식물은 어떤 게 이수과?(이 동네에서 나는 바다동물과 식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처럼 제주지역어로 묻고 답할 수 있게 꾸며졌다. 만일에 질문에 대한 응답이 ‘소라’이면, “소라를 이 동네 말로 뭐렌 곶아마씨?(소라를 이 동네 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처럼 질문 문항을 추가하여 기초어휘 자료를 확보하였다. 1차 어휘 자료 수집을 위해 사용한 질문지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제주도 도서지역의 어촌생활어 조사 질문지 예
 - ① 이 동네서 바닷의서 물질하는 사름을 뭐렌 불러마씨?(이 동네에서 바다에서 물질하는 사름은 뭐라고 부릅니까?)
 - ② 물질하는 사름도 잘하는 사름과 못하는 사름을 구별허영 불릅니까?(물질하는 사름도 잘하는 사름과 못하는 사름을 구별해서 부릅니까?)

- ③ 바당의서 나는 바당풀덜은 어떤 게 이신고양?(바다에서 나는 바다풀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 ④ 바당에 들어강 물질허멍 잡는 건 어떤 거 잇어마씨?(바다에 들어가 물질 하며 잡는 것은 어떤 게 있어요?)
- ⑤ 것도 종류별로 불리는 이름이 트나지양?(그것도 종류별로 부르는 이름이 다르지요?)
- ⑥ 바당께기 종류도 하지양?(바다고기 종류도 많지요?)

제보자는 가능한 한 조사 지역 출신으로 섬을 오래 떠나지 않은 70대 이상으로 선정하였고, 조사는 일대일 면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차 어휘 수집을 위해 제보자를 70대 이상으로 한정하여 조사한 것은 조사자들의 언어가 오래도록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태 지수 측정의 표본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채록된 자료는 간이전사(簡易轉寫)¹²⁾ 후에 어휘를 추출하여 목록화하였다.

(2) 구술 채록 조사 내용과 자료 정리 예

<조사 예 1>

- 조사일시: 2011년 11월 11일
- 조사자: 김순자
- 제보자: 정금주(83·우도면 조일리 비양동)

(@: 조사자, #: 제보자)

@ 계난예 이 바당에서 나는 아까 군벳 보말예 이런 거 한번 쪽 돌아봔서.

어떤 것들이 이신디사. 이 바당에 나는 거 삼춘 허여 본 거?

이 바당에 나는 거. 군벳 강이 뭐 고동 ㄴ똥 것도 돌아?

@ 돈딱 돌아봔서?

고동 점복 오분께기 성기 바당성기 잇고. 그것덜. 또 슴 그거.

@ 게른예. 여기 아까 보말도 안 곶고?

보말?

@ 보말?

수두리보말 먹보말 텡쟁이 막 우의 나는 건 텡쟁이. 돌포말 ㄴ메기 가마

12) 귀로 들은 방언형을 음성기호 등으로 기록하는 일인 ‘전사’는 ‘간이전사’와 ‘정밀전사’ 두 가지로 나뉜다. ‘간이전사’는 음운 수준까지만 구별하여 적는 것이고, ‘정밀전사’는 변이음들의 음성차까지 구별해 적는 것이다.

귀보말 경.

<조사 예 2>

- 조사일시: 2011년 11월 25일
- 조사자: 김순자
- 제보자: 김순선(82·여·제주시 한림읍 비양리)

@ 이 바당에 나는 보말들은 어떤 게 있어마씨?

보말도게 먹보말 잇곡 수두리보말 싣고. 그 깃메기 이제 곰생이보말 잇고 문닥지엔 현 보말 잇고 켜켄현 보말은 올라가든 영 코 툫아져게. 게난 코 톱데기엔 허곡. 문닥지[문닥찌]는 그 구제기딱지ㄴ찌 딱딱헌 딱지 싣 거 그것ㄴ라 문데기. 걸 문데기보말. 베말은 크주마는 오갈엔 현 건 요만씩 허여. 베말은 흥끔 동글동글 요 돌에 영 부트는 거 까망헌 거. 오갈은 그 것거찌 까망은 아녕은에 색깔은 뭍아도 그거 비슷은 헤도 이거는 옴팍허고 좋아. 터럭군부 싣고 보통 군벳 잇고. 영 거찌든 옴팍 들어가는 하래비 군붓이엔 현 거 싣고.

<조사 예 3>

- 조사일시: 2011년 10월 14일
- 조사자: 김순자
- 제보자: 강죽자(69·여·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 게든 메역 현 다음에는 끝나면?

미역현 다음에는 소라도 잡곡.

@ 예.

무슨 뭐 옛날에는 이제는 엇어도 옛날 그 전의는 우리 오분제기도 트고. 오분제기보고 바르엔 합니다. 바르.

@ 예. 바르.

바르. 것도 트고 소라도 잡곡 옛날은 보말 잡으멍 다 먹었주마는 요즘엔 보말허영 풀고. 종류도에 먹보말 싣곡 수두리보말 싣고 텡깡이보말 싣고, 문데기 싣곡.

@ 문데기 싣고.

ㄴ메기 싣고.

구술채록 내용에서 조사된 어휘는 추출하여 <표 1>처럼 목록화하였다¹³⁾.

<표 1> 1차 어휘 수집 자료의 목록화 예

우도	비양	가파
군벳	군벳	
강이		
	터럭군부	
	하래비군붓	하래비군벳
고등/고동	구제기	구제기
점복		
오분제기		오분제기/바르
성기		
바당성기		
습		
보말	보말	보말
수두리보말	수두리보말	수두리보말
먹보말	먹보말	먹보말
뎡쟁이		뎡쟁이보말
돌포말	문닥지/문데기	문데기
꺄매기	꺄매기/곰생이보말/코트데기	꺄매기
가마귀보말		

3) 생태 지수 측정을 위한 설문지 개발과 조사

1차 어휘 수집 자료를 토대로 생태 지수 측정을 위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설문지는 1차 조사에서 수집된 어휘 가운데 4개 조사 지역에서 제보자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해산물 관련 어휘를 포함한 어촌생활어 106개 항목을 분류하여 작성하였다. 당초 연구계획서에는 해산물 관련 어휘를 가지고 설문지를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세대별로 생태 지수 측정이 가능한 어휘를 선별하다 보니 문항 수가 적어 생태 지수 측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 범위를 어촌생활 전반과 관련한 어휘로 확장하였다.

설문지 조사 항목은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조사 지점에서 많이 쓰이는

-
- 13) <표 1>의 1차 어휘 수집 자료의 목록화는 <조사 예 1>에서 <조사 예 3>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짜여진 것이다. <조사 예 1~3>에서 조사되지 않은 어휘는 공란으로 두어 자료 정리 과정을 <표 1>로 보여준 것이다.

어휘들로서 세대별 지수 측정을 할 때 객관적인 자료로 손색이 없다고 판단된 어휘들이다. 설문지 조사 항목은 ‘행위자’ 분야 4개 어휘, ‘환경’ 분야 9개 어휘, ‘바다동물’ 분야 37개 어휘, ‘바다식물’ 분야 17개 어휘, ‘도구’ 분야 20개 어휘, ‘행위’ 분야 6개 어휘, ‘음식’ 분야 8개 어휘, ‘민속’ 분야 5개 어휘 등 8개 분야로 나뉘어 작성되었다. <표 2>는 분야별 설문 조사 항목들이다.

<표 2> 생태 지수 측정을 위한 설문지 조사 항목

분야	조사 어휘
행위자	좁녀/좁수, 보제기/어제기, 상군, 사공
환경	바당, 모살/물래, 누/절, 개꿈, 여, 코지, 원/원담/개/갯담/멜통, 물들다, 물싸다
바다동물	멜, 고등에, 고도리, 징어리, 어랭이, 고생이/고맹이/콜생이, 행이, 갈치, 구릿/구릿/구르치(찌), 객주리, 각제기, 자리, 생선/생성/오토비/오토생성/솔라니/솔래기, 갱이/갱이/궁이, 거드레기/거들레기/게드레기/게들레기, 밤게/밤주리, 구쟁이/구쟁기/구제기/고동, 쌀구제기/쌀구쟁이/쌀고동, 조쿠제기/조쿠쟁이/좁쌀구쟁이, 베허기/대오살/대오살, 솜, 퀴/구살/성기, 해솜/미, 집복/좁복, 조쟁이, 보말/보벌, 수두리보말, 먹보말, 문닥지/문테기/문다드리/문다닥지, 매옹이/매홍이/매홍기, 오분작/오분제기/바르/오분자구, 군빏/군빏, 군수/굴맹이/물토새기, 물꾸러/무꾸러/물게, 비말/베말/쟁베름, 늘래/늘래, 무리다
바다식물	매역, 매역귀, 우미/천초, 톳/톨, 가시리, 뽕/뽕망, 매역새(새), 녀피/녀패/녀패, 듬복, 감태, 청각/청각, 포레/벼래, 좁뽕, 좁포래, 개포래, 주충/지충, 곤피다/시설올르다, 곤사다
도구	소중이/소중기/속곳, 물수건, 눈, 테왁/두렁박/두름박, 망사리/망시리/홍사리/홍아리, 조락/조레기, 비창, 호맹이/굴각지/굴쟁이, 소살, 질구덕, 지들커, 테우/터우/터위/테, 공쟁이, 네/노, 이물, 고물/고불, 치, 사들, 침대/좁대, 니깍/이깍
행위	숨비다, 즈물다, 바릇잡다/바릇잡다, 후리다, 물질/무레질, 발레다/바레다
음식	자리젓, 멜젓/멜젓, 모치, 갱이범벅/갱이범벅, 포래국, 매역국, 톳맛/툇맛, 폐밥
민속	영등할망, 요왕지, 선앙, 영등굿, 지들이다

설문 조사 항목은 다음의 <표 3> ‘설문지 예’에서 보이듯 1차 어휘 조사에서 수집한 제주지역어를 사용하였고, 조사 항목 가운데 지역에 따라 어형이 다른 경우는 ‘좁네/좁수’, ‘보제기/어제기’, ‘고생이/고맹이/콜생이’처럼 한 묶음 안에 여러 방언형을 병기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1차 어휘 조사 제보자들이 사용하는 제주지역어 가운데 표준어와 일대일로 대응되는 것은 <참고 사항>에 명기하여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설문지 내용에 없는 어휘가 조사될 경우에는 <비고>란에 표기하였다.

설문지의 조사 항목은 정금주(82·여·제주시 우도면 조일리 비양동) 외 6명의 제보자¹⁴⁾의 구술 자료와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회(1973)의 『국문학보』 제5집 외 6개의 문헌자료¹⁵⁾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한편 생태 지수 측정을 위한 설문지의 인지 항목은 <표 3>의 ‘설문지의 예’에 ①무슨 뜻인지 알고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쓰고 있다. ②무슨 뜻인지 알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는다. ③예전에는 썼지만 지금은 쓰지 않는다. ④들어보기는 했으나 잘 알지 못한다. ⑤처음 들어보는 말이어서 무슨 뜻인지 모른다. 등 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¹⁶⁾

설문 조사는 70대 이상, 50대, 30·40대 등 3세대로 나눠 실시하였다. 당초 연구 계획에는 80대, 60대, 40대, 20대 등 4세대로 나눠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도서지역의 특성상 20대와 40대의 분포 인구가 적어 불가피하게 생태 지수 측정을 위한 범위를 3세대로 변경하였다. 60대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조사 대상을 70대 이상으로 변경하면서 언어 사용 양상이 60대와 70대 이상이 비슷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조사 대상은 제주도 도서지역 중 가장 큰 섬인 우도에서 35명(남 20명, 여 15명), 비양도에서 11명(남 6명, 여 5명), 가파·마라도에서 24명(남 9, 여 15명) 등 70명이다. 세대별로는 70대 30명(남 10명, 여 20명),

14) 조사 항목 선정에 도움을 준 제보자는 정금주(82·여·제주시 우도면 조일리 비양동), 강의근(69·남·제주시 우도면 영흥리), 김순선(82·여·제주시 한림읍 비양리), 차철의(78·남·제주시 한림읍 비양리), 강죽자(70·여·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강순화(78·여·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라화옥(79·여·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리) 등 7명이다.

15) 문헌자료로는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회(1973)의 『국문학보』 제5집(1973),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회(1974)의 『국문학보』 제6집, 강정희·김순자(2010)의 『2010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보고서 5』(비양도의 고기잡이)(국립국어원·한남대학교), 강정희 외(2010), 『2010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보고서 1』(비양도의 어촌생활어 기초 어휘)(국립국어원·한남대학교), 강정희·김순자(2011), 『2011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보고서 5』(해초류)(국립국어원·한남대학교), 강정희 외(2011), 『2011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보고서 1』(우도의 어촌생활어 기초 어휘)(국립국어원·한남대학교), 강영봉 외(2011), 『2011년도 제주지역어 조사보고서』(국립국어원) 등 7권이 활용되었다.

16) 생태 지수 측정을 위한 설문지의 인지도 항목은 제주대학교국어상담소·국립국어원(2008)의 『제주지역어 생태 지수 조사』 설문지를 원용하였다.

50대 20명(남 13명, 여 7명), 30·40대 20명(남 12명, 여 8명)으로, 지역별·세대별로 균형 있는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조사된 설문지는 엑셀 수식 ‘COUNTIF’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고, 통계 분석한 자료는 인지 항목 ①은 ‘사용’ ②는 ‘이해’ ③은 ‘예전 사용’ ④는 ‘이해 못함’ ⑤는 ‘모름’으로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표 3> 설문지 예

번호	조사 어휘	인지도	비고
001	잠녀/잠수	①무슨 뜻인지 알고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쓴다. ②무슨 뜻인지 알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는다. ③예전에는 썼지만 지금은 쓰지 않는다. ④들어보기는 했으나 잘 알지 못한다. ⑤처음 들어보는 말이어서 무슨 뜻인지 모른다.	
	참고 사항	표준어: 잠녀, 해녀	
002	보제기/어제기	①무슨 뜻인지 알고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쓴다. ②무슨 뜻인지 알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는다. ③예전에는 썼지만 지금은 쓰지 않는다. ④들어보기는 했으나 잘 알지 못한다. ⑤처음 들어보는 말이어서 무슨 뜻인지 모른다.	
	참고 사항	표준어: 어부	

II. 제주도 도서지역의 항목별 조사 어휘

세대별 생태 지수 측정을 위한 설문 항목에 따라서 지역별로 조사된 어휘는 기술의 편의상 <부록 1>로 처리하였다.

조사 어휘를 보면, 우도, 비양도, 가파·마라도 3지점에서 방언형이 일치한 경우¹⁷⁾는 ‘잠수, 사공, 바당, 모살, 개꿈, 여, 코지, 물들다, 물싸다, 뿔, 고등에, 고도리, 징어리, 어랭이, 웅이, 갈치, 객주리, 각제기, 자리, 습, 해습, 수두리, 먹보말, 굴맹이, 놀래, 우미, 가시리, 몐, 감태, 픔레, 줍 픔레, 개 픔레, 물수건, 태왁, 망사리, 비창, 지들커, 네, 이물, 고불, 치, 즈물다, 후리다, 물질, 자리젓, 픔레국, 폐밥, 영등할망, 영등곳’ 등 49개 어휘(46.2%)로 나타났다. 또 두 지역에서 같은 어휘가 조사된 경우는

17) 조사 어휘 가운데 이형태가 있는 경우는 대표형만을 소개하였다.

‘보제기, 누, 코생이, 강이, 밥주리, 구살, 점복, 보말, 메옹이, 굼벵, 베말, 무리다, 메역, 메역귀, 툷, 메역새, 넘피, 듄복, 정각, 춤뭉, 주충, 큰피다, 속곳, 눈, 글갱이, 소살, 질구덕, 테, 공쟁이, 사들, 춤대, 니껍, 숨비다, 바룻잡다, 바레다, 멜치, 뭉치, 메역국, 툷밥, 요왕제, 선양, 지들이다’ 등 42개 어휘(39.6%)였다.

세 지역의 어형이 각기 다른 경우는 ‘상군, 원담, 구릿, 오테미, 게들레기, 구쟁이, 쌀구쟁이, 좁쌀고동, 대오삭, 조개, 돌포말, 오분작, 뭉게, 조락, 강이범벅’ 등 15개 어휘(14.2%)로 나타나 3지점의 조사 어휘가 다른 분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개의 조사 지점에서 각기 다르게 분화된 어휘는 <표 4>와 같다.

<표 4> 세 지역에서 서로 다르게 조사된 어형

표준어 ¹⁸⁾	우도	비양도	가파도·마라도
상군	상군	상즘레	상습녀, 큰즘녀, 큰즘수
원	원담	원	멜통
뱅에돔	구릿	구룻	구르치(구르찌)
옥돔	오테미	생성	생선
소라개/집게	게들레기	거드락지	기드레기
소라	구쟁이/고동	구쟁기	구제기
중간 크기로 살이 있는 소라	쌀구쟁이	쌀구쟁기	쌀구제기
크기가 작은 소라	좁쌀고동/썰방구	조꾸쟁기	조꾸제기
거북손	대오삭	배체기	대우살
조개	조개	조쟁이	어금
눈알고동	돌포말	문드러지/문다기	문데기
오분자기	오분작	오분자구	오분제기/바르
문어	뭉게	무꾸럭	물꾸럭
작은 망사리	조락	조레기	좁망사리
	*	강이범벅	*

18) 대응 표준어가 없는 경우는 방언형을 그대로 쓰거나 ‘크기가 작은 소라’처럼 풀어썼다.

한편 조사된 어휘 가운데 ‘바다식물’ 분야의 ‘듬북’과 ‘바룻잡다’ 관련 어휘가 가파·마라도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음식’ 분야의 ‘뭍치’는 우도에서, ‘강이범벅’은 우도와 가파·마라도에서 조사되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언중들이 사용하는 어휘가 언중들의 삶과 문화와 역사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Ⅲ. 제주도 도서지역의 어촌생활어 생태 지수

1. 세대별 어촌생활어 생태 지수

제주도 도서지역의 어촌생활어 생태 지수¹⁹⁾를 측정한 결과, 70대 이상에서는 생태 지수가 높게 나타난 반면 30·40대에서는 지수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에서 생태 지수는 어휘 사용 빈도율을 나타내는 용어로, 빈도율이 높은 것은 안전한 상태에 있는 어휘이고, 빈도율이 낮은 것은 사멸 위기에 놓인 어휘라는 의미다.

생태 지수가 높은 어휘는 일상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로서 ‘바다동물’과 ‘바다식물’과 관련된 어휘가 주종을 이룬다. 106개 조사 어휘 가운데 30·40대에서 100% 사용하는 어휘가 ‘갈치·객주리’ 등 8개 어휘였고, 50대에서는 ‘갈치·객주리’ 등 22개 어휘, 70대 이상에서는 ‘이물·고물’ 등 51개 어휘로 나타나 세대가 높을수록 생태 지수가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반면 0~19% 미만만 사용하는 어휘는 30·40대에선 ‘즘너·상군’ 등 28개 어휘, 50대에선 ‘보제기·폐밥’ 등 5개 어휘, 70대에선 ‘보제기·폐밥’ 등 8개 어휘였다. 0~19% 미만을 사용하는 어휘의 경우, 50대보다 70대에서 높은 빈도를 보여 특이한 양상을 나타냈다. 이런 결과는 조사 대상 가운데 50대가 70대보다 교육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과의 언어 접촉이 빈번해지며 언어 개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 가운데 30·40대에서 ‘모르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 응답한

19) 제주도 도서지역의 어촌생활어 생태 지수 조사 종합 분석표는 <부록 2>에 실음으로써 제주도서 지역의 어촌생활어 생태 지수를 한눈에 살필 수 있게 하였다.

어휘 가운데 50% 이상 모르는 어휘는 ‘쌀구제기’ 등 17개 어휘였는데 반해 ‘바당’·‘모살’ 등 22개 어휘는 100% 이해한다고 응답해 아직도 도서지역에서는 표준어형보다 방언형을 즐겨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0대에서 50% 이상 ‘모르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사들’ 1개 어휘, 70대 이상에서는 ‘조갱이’ 1개 어휘로 차이를 보였다. 반면 100% 인지하는 어휘는 50대에서 106개 어휘 가운데 68.8%인 73개 어휘, 70대 이상에서는 83.0%인 88개나 되어 세대가 높을수록 아직도 방언형을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은 도서지역에서는 아직도 연령층이 높은 경우 표준어형보다 방언형을 생활어로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태 지수가 낮은 어휘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도서지역에서 주민들이 생활어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반면에 30~40대 응답자의 생태 지수가 낮은 것은 이들이 어촌생활과 관련한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사 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과의 언어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의 언어 습득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하면 교육 환경의 변화와 매스컴의 영향 등으로 말미암아 어휘 선택이 방언형에서 표준어형으로 옮겨가거나 생활환경 등의 변화로 어촌생활과 밀접한 어휘보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어휘 사용으로 언어환경이 바뀌면서 일어난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특정 지역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어형들은 어휘 전승 폭이 좁아 생태 지수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령 70대 이상에서 30% 이상 모르겠다고 응답한 어휘 ‘흠프레, 조락, 사들, 바룻잡다, 패밥, 듬복, 뭍치, 갱이범벅, 조갱이’는 조사 지점별로 서로 다른 방언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조락’인 경우, ‘오분자기 따위를 넣는 크기가 작은 망사리’라는 의미로 조사를 했는데, 가파·마라도에서는 ‘작은 바구니’를 뜻하는 어휘로 쓰이고 있고, ‘바룻잡다’나 ‘듬복’, ‘조갱이’는 가파·마라도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어휘여서 생태 지수가 낮게 측정되었다.

‘조갱이’인 경우는, 비양도에서만 ‘조개’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우도에서는 ‘작은 전복’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갱이범벅’의 경우는 비양도에서만 조사되었고, 나머지 두 지역에서는 ‘갱이’ 즉 ‘게’를 가지고 범

벽을 해 먹지 않았다는 응답자들의 답변으로 보아 어휘 사용이 일반화 되지 않음으로써 생태 지수가 낮게 나타난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사 지점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어휘보다는 서로 다른 형태의 어형을 보이는 사용자가 적은 어휘가 생태 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어휘부터 사멸의 길을 걸을 것으로 진단되었다. 세대별 전체 조사 어휘의 사용 빈도율을 그래프로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제주도 도서지역의 세대별 전체 조사 어휘 사용 빈도율

위의 그래프를 보면, 106개 조사 어휘 중에 30~40대에서 10% 미만 사용하는 어휘가 13개, 50대는 2개, 70대 이상 3개 어휘로 나타난 반면 100% 사용 어휘는 30~40대에서 8개에 불과했지만, 50대에선 22개, 70대 이상에서는 51개 어휘로 세대가 높을수록 방언형 사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2. 분야별 어촌생활어 생태 지수

1) 행위자 관련 어휘

‘행위자’와 관련한 어휘 항목은 4개 어휘다. 이들 4개 조사 어휘 가운데 30~40대에서 0~9%로 낮은 빈도율을 보이는 어휘는 ‘즘녀, 보제기, 사공’ 등 3개 어휘다. 또 50대와 70대에서 ‘어부’의 방언형 ‘보제기’와 ‘해녀’의 방언형 ‘즘녀’의 생태 지수가 낮은 것은 이들 조사 어휘가 지역에 따라서 방언형이 다르게 출현되기 때문이다. 행위자 관련 어휘의 세대별 사용 빈도율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5> 행위자 관련 어휘 사용 빈도율

구분	30·40대	50대	70대 이상
0~9%	좁녀, 보제기, 사공	보제기	보제기
10~19%	상군	좁녀	
20~29%			좁녀
50~59%		상군, 사공	상군
60~69%			사공

<표 6> 환경 관련 어휘 사용 빈도율

구분	30·40대	50대	70대 이상
0~9%	누, 게끔		
20~29%	바당, 모살		
30~39%			누
50~59%	원		
60~69%		누, 게끔	원
70~79%	여, 코지, 물들다, 물싸다	모살	
80~89%		물들다, 물싸다	게끔
90~99%		바당	모살
100%		여, 코지	바당, 여, 코지, 물들다, 물싸다

2) 환경 관련 어휘

‘환경’ 관련 어휘는 ‘바당, 모살, 누, 게끔, 여, 코지, 원, 물들다, 물싸다’ 등 9개 어휘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바다’의 방언형 ‘바당’의 경우, 전체 92.9%가 사용하고 있어 생태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 ‘모살, 여, 코지, 물들다, 물싸다’도 80% 이상 사용 빈도율을 보였다. 반면 ‘누’(파도)와 ‘게끔’(거품)은 평균 빈도율이 50%를 밑돌아 생태 지수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대별로 보면, 30·40대에서 ‘누, 게끔, 바당, 모살’이 30% 미만의 사용 빈도율을 보인 반면, 70대에서는 ‘바당, 여, 코지, 물들다, 물싸다’ 등 5개 어휘가 100%의 사용율을 보여, 도서지역에서는 아직도 고�령층에서는 방언형 사용을 생활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0대 이상에서 ‘누’와 ‘원’의 사용 빈도율이 50대보다 낮게 나타

나는 것은 이들 어휘가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는 어휘인데다 50대가 70대보다도 언어환경과 생활환경 등의 변화로 외부 접촉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 바다동물 관련 어휘

‘바다동물’과 관련한 어휘는 모두 37개 어휘다. 이 가운데 ‘무리다’와 ‘늘래’를 제외한 35개 ‘바다동물’ 가운데 생태 지수가 높은 ‘사용’ 어휘를 보면, 30·40대에서 100% 사용하는 어휘가 ‘갈치, 객주리, 자리, 보말’ 등 제주에서 일상어로 사용하는 4개 어휘이고, 50대에서는 ‘고도리, 어랭이, 갈치, 객주리, 각제기, 자리, 갱이, 습, 보말, 군벳’ 등 10개 어휘, 70대에서는 ‘멜, 고도리, 어랭이, 고생이, 웅이, 갈치, 객주리, 각제기, 자리, 갱이, 거드레기, 베체기, 습, 보말, 수두리보말, 먹보말, 메옹이,

<표 7> 바다동물 관련 어휘 사용 빈도율

구분	30·40대	50대	70대 이상
0~9%	고등에, 밥게, 조쟁이(3개)		
10~19%	징어리, 생선, 쌀구제기, 조쿠제기, 해습, 문닥지(6개)	조쟁이(1개)	조쟁이(1개)
20~29%	멜, 구쟁기, 쿨, 점복(3개)	생선, 조쿠제기(2개)	고등에, 생선(2개)
30~39%	베체기(1개)		
40~49%	물꾸럭(1개)	쌀구제기, 해습(2개)	징어리, 쌀구제기(2개)
50~59%		문닥지(1개)	
60~69%	고생이, 웅이, 거드레기(3개)	고등에, 구쟁이, 쿨, 점복, 물꾸럭(5개)	조쿠제기, 쿨, 해습(3개)
70~79%		밥게(1개)	문닥지(1개)
80~89%	고도리, 갱이, 수두리보말, 먹보말(4개)	징어리(1개)	구릿, 구쟁이, 물꾸럭(3개)
90~99%	어랭이, 구릿, 각제기, 습, 메옹이, 오분작, 군벳, 군수, 비말(9개)	멜, 고생이, 웅이, 구릿, 거드레기, 베체기, 수두리보말, 먹보말, 메옹이, 오분작, 군수, 비말(12개)	밥게, 점복, 오분작(3개)
100%	갈치, 객주리, 자리, 보말(4개)	고도리, 어랭이, 갈치, 객주리, 각제기, 자리, 갱이, 습, 보말, 군벳(10개)	멜, 고도리, 어랭이, 고생이, 웅이, 갈치, 객주리, 각제기, 자리, 갱이, 거드레기, 베체기, 습, 보말, 수두리보말, 먹보말, 메옹이, 군벳, 군수, 비말(20개)

군벚, 군수, 비말’ 등 20개 어휘로 나타나 세대가 높을수록 생태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해하지 못하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을 보인 어휘는 70대 이상에서 35개 어휘 중 ‘조갱이’ 등 3개 어휘, 50대에서는 ‘문닥지’ 등 6개 어휘, 30·40대에서는 ‘멜’ 등 무려 26개 어휘로, 젊은 층으로 갈수록 생태 지수가 낮게 나타나 언어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 바다식물 관련 어휘

‘바다식물’의 경우, ‘근피다’를 제외하고 16개 어휘가 ‘바다동물’ 관련 어휘에 비해서 생태 지수가 낮아 사멸 위기에 놓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30·40대의 경우, 50% 미만의 사용률을 보인 어휘는 16개 조사 어휘 가운데 ‘츄프레, 프레, 개프레, 메역세, 녀피, 츄뎀, 주충, 메역, 메역귀’ 등 9개 어휘(56.2%)로 나타났다. 50대는 ‘츄프레, 개프레’ 등 2개 어휘가 50% 미만의 사용률을 보인 반면 90% 이상 사용률을 보인 어휘는 9개 (56.2%)로 생태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0대 이상에서는 16개 어휘 중 75%인 12개 어휘가 80% 이상 사용하고 있는데, ‘츄프레’의 경우는 50대보다 사용 빈도율이 낮은 2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의

<표 8> 바다식물 관련 세대별 어휘 사용 빈도율

구분	30·40대	50대	70대 이상
0~9%	츄프레(1개)		
10~19%	프레, 개프레(2개)		츄프레(1개)
20~29%	메역세, 녀피, 츄뎀, 주충(4개)		
30~39%	메역, 메역귀(2개)	츄프레, 개프레(2개)	
50~59%		듬북, 츄뎀(2개)	츄뎀(1개)
60~69%	듬북(1개)		듬북(1개)
70~79%	가시리(1개)	메역, 메역귀(2개)	프레(1개)
80~89%		프레(1개)	메역, 메역귀, 메역세, 개프레(4개)
90~99%	우미, 뎀, 감태(3개)	우미, 뎀, 녀피, 주충(4개)	우미(1개)
100%	툇, 청각(2개)	툇, 가시리, 메역세, 감태, 청각(5개)	툇, 가시리, 뎀, 녀피, 감태, 청각, 주충(7개)

경우에서 보듯, ‘츄프레’ 사용 지역이 제한된 데다 50대 이하에서는 교육과 타 지역과의 접촉 등으로 말미암아 언어접촉이 빈번해지면서 사용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세대별로 생태 지수의 차이가 큰 것은 30·40대의 젊은 층의 경우에 생업으로 어업 관련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표준어 교육과 마스크의 영향으로 지역어 사용을 기피하는 현상도 사용 빈도율을 낮추는 요인이다. 한편 70대 이상에서 생태 지수가 낮게 나타난 어휘는 어휘 분화가 세 지역에서 달리 나타나는 경우와, 어휘 사용자가 지역어 사용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가파도에서 만난 80대 노인은 “손자들과 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어보다 표준어 사용을 하려고 한다.”고 응답하였다.

5) 도구 관련 어휘

‘도구’ 관련 어휘는 20개 어휘 가운데 50% 미만 사용 어휘가 30·40대에서 ‘질구덕, 공쟁이, 소중이, 사들, 물수건, 테우, 치, 소살’ 등 8개 어휘(50%)로 나타났고, 50대는 ‘소중이, 물수건, 공쟁이, 테우, 질구덕, 사들’ 등 6개 어휘(37.5%), 70대 이상이 ‘소중이, 질구덕, 물수건, 공쟁이, 사들’ 등 5개 어휘(31.2%)로 나타났다. 도구 관련 어휘 중 50대 이상에서 낮은 사용 빈도율을 보이는 ‘소중이, 물수건, 공쟁이, 사들’ 등은

<표 9> 도구 관련 세대별 어휘 사용 빈도율

구분	30·40대	50대	70대 이상
0~9%	질구덕, 공쟁이(2개)		
10~19%	소중이, 사들(2개)	소중이, 물수건(2개)	소중이, 질구덕(2개)
20~29%	물수건, 테우, 치(3개)	공쟁이(1개)	
30~39%	소살(1개)	테우(1개)	물수건(1개)
40~49%		질구덕, 사들(1개)	공쟁이, 사들(2개)
50~59%	호맹이(1개)		테우(1개)
60~69%	조락, 네, 첼대(3개)	조락, 네(1개)	조락, 네(2개)
70~79%	비창(1개)	호맹이, 치(1개)	
80~89%		첼대(1개)	소살(1개)
90~99%	망사리(1개)	소살(1개)	첼대(1개)
100%	테왁(1개)	테왁, 망사리, 비창(1개)	테왁, 망사리, 비창, 호맹이, 치(4개)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어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전 세대에 걸쳐 ‘테왁’과 ‘망사리’가 90% 이상 사용 빈도율을 보인 것은 이들 어휘가 제주 지역에서 일상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6) 행위 관련 어휘

‘행위’ 관련 어휘는 6개다. 이 가운데 30·40대에서 50% 미만만 사용하는 어휘는 50%인 3개(바릇잡다, 후리다, 발레다)였으나 5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1개(각 후리다)였다. 50대 이상에서 50% 미만 사용하는 어휘는 ‘후리다’로, 사용 빈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조사 지역의 생활환경 속에서 ‘후리다’가 사멸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이다. 반면 전 세대 별로 ‘물질’(30·40대 90% 이상, 50대 100%, 70대 이상 100%)은 대부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0> 행위 관련 세대별 어휘 사용 빈도율

구분	30·40대	50대	70대 이상
10~19%	바릇잡다(1개)		
20~29%	후리다, 발레다(2개)		
30~39%		후리다(1개)	후리다(1개)
50~59%	숨비다(1개)	바릇잡다, 발레다(2개)	바릇잡다(1개)
60~69%	즈물다(1개)		
80~89%		숨비다(1개)	
90~99%	물질(1개)	즈물다(1개)	숨비다, 발레다(2개)
100%		물질(1개)	즈물다, 물질(2개)

7) 음식 관련 어휘

‘음식’ 관련 어휘는 생태 지수가 높은 어휘와 낮은 어휘가 현격히 구분되고 있다. 구황음식이었던 ‘폐밥’은 전 세대에서 10% 미만만 사용하고 있고, 비양도에서만 조사된 ‘강이범벅’은 30·40대, 50대에서 20% 미만 사용하는 반면 70대 이상에서는 10% 미만만 사용하고 있어 차이를 보였다. 반면 ‘자리젓’은 전 세대에서 100% 사용해 제주토속음식인 ‘자리젓’이 오늘날까지 전래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11> 음식 관련 세대별 어휘 사용 빈도율

구분	30·40대	50대	70대 이상
0~9%	페밥(1개)	페밥(1개)	강이범벅, 페밥(2개)
10~19%	강이범벅, 폰레국(2개)	강이범벅(1개)	
20~29%	몐치, 톨밥(2개)		
40~49%	멜챗, 메역국(2개)	몐치, 폰레국, 톨밥(3개)	몐치, 폰레국(2개)
60~69%			톨밥(1개)
70~79%		메역국(1개)	
90~99%			메역국(1개)
100%	자리젯(1개)	자리젯, 멜챗(2개)	자리젯, 멜챗(2개)

<표 12> 민속 관련 세대별 어휘 사용 빈도율

구분	30·40대	50대	70대 이상
20~29%	선앙(1개)		
30~39%	요왕지, 지들이다(2개)		
70~79%		요왕지, 선앙, 지들이다(3개)	
80~89%	영등할망, 영등굿(2개)		
90~99%		영등할망, 영등굿(2개)	
100%			영등할망, 요왕지, 선앙, 영등굿, 지들이다(5개)

8) 민속 관련 어휘

‘민속’ 관련 어휘는 5개다. 70대 이상은 조사 어휘 전 영역에서 100% 사용하고 있으나, 30·40대에서는 5개 어휘 중 ‘선앙, 요왕지, 지들이기’ 등 3개 어휘를 40% 미만만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 ‘영등할망’과 ‘영등굿’은 30·40대에서 80~89%, 50대 이상에서 90% 이상의 높은 사용률을 보였는데, 이는 ‘영등할망’과 ‘영등굿’이 아직도 제주의 중요한 민속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IV. 결론

이 논문은 제주도 도서지역의 세대별 생태 지수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는 우도, 비양도, 가파·마라도 등 4개 지역을 3지점으로 나누어 30·40대, 50대, 70대 이상 등 3세대의 어휘 항목에 대한 인지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조사 어휘 항목 선정을 위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였다. 70대 이상 제보자 7명에게 기초어휘를 조사한 후 기존 문헌자료 어휘와 비교하여 도서지역에서 널리 써오던 106개 어촌생활어를 목록화하였다. 106개 어휘는 ‘행위자, 환경, 바다동물, 바다식물, 도구, 행위, 음식, 민속’ 등 8개 분야로 나누어 ‘사용’, ‘이해’, ‘예전 사용’, ‘이해 못함’, ‘모름’ 등 5개의 인지항목으로 나뉘어 생태 지수를 조사하였다.

조사 항목 선정을 위해서는 구술채록 방식의 질문지가 개발되었다. 이 질문지를 토대로 3지점에서 어촌생활어를 조사한 후 목록화하였으며, 생태측정을 위해 도서지역에서 널리 쓰이는 어휘 가운데 세대별 사용 빈도율을 측정할 어휘 항목 106개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106개 어휘에 대해 3지점에서 재조사가 이루어졌는데, 3지점에서 같은 어형이 조사된 경우는 ‘사공’ 등 49개 어휘(46.2%), 3지점에서 2개 어휘가 공통으로 조사된 경우는 ‘깅이’ 등 42개 어휘(39.6%), 3지점에서 서로 다른 어형을 보인 경우는 ‘벙에돔’ 등 15개 어휘(14.2%)였다. 3지점에서 공통으로 조사된 어휘는 생태 지수가 높은 반면 3지점의 어형이 서로 다른 경우는 빈도율이 낮게 측정되었다. 이는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젊은 층의 인구가 적은 것도 원인이 되지만 젊은 층의 생활환경과 언어환경이 노년층과는 달리 외부 접촉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생태 지수 측정 결과, 30·40대에서 0~9% 미만만 사용하는 어휘가 ‘즘녀, 보제기, 사공, 누, 게끔, 고등에, 밥게, 조갱이, 춤뜨레, 곤피다, 질구덕, 공쟁이, 폐밥’ 등 13개나 되어 도서지역에서 사용되던 어촌생활어가 사멸의 길을 걷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50대에서는 ‘보제기, 폐밥’ 등 2개 어휘, 70대 이상에서는 ‘보제기, 폐밥, 깅이범벅’ 등 3개 어휘로 나타나 어촌생활어의 체계적인 조사와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00% 사용하는 어휘는 30·40대에서 ‘갈치’ 등 8개 어휘, 50대에서

‘멜컷’ 등 22개 어휘, 70대 이상에서는 ‘이물’ 등 51개 어휘여서 70대 이상에서는 아직도 방언형을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강이범벅’ 등의 어휘는 70대 이상보다 50대에서 높은 사용률을 보였는데, 이는 젊은 층일수록 다른 지역과의 언어접촉이 쉬울 뿐만 아니라 교육과 생활환경 등의 영향으로 언어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서지역의 토착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정리, 전승을 위한 방안이 화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록 1> 1 생태 지수 조사 설문지에 따른 지역별 조사 어휘

<행위자>					
번호	조사 어휘	표준어	우도	비양도	가파도·마라도
001	좁녀/좁수	해녀	좁수	좁수, 좁네	좁수
002	보제기/어제기	어부	보제기	보제기	어제기
003	상군/상좁네/큰좁수	*	상군	상좁네	상좁녀, 큰좁녀, 큰좁수
004	사공	사공	사공	사공	사공
<환경>					
번호	조사 어휘	표준어	우도	비양도	가파도·마라도
005	바당	바다	바당	바당	바당
006	모살/몰래	모래	모살	모살	모살
007	누/절	파도	누	파도	누/누맹이
008	게끔	거품	게끔	게끔, 물게끔	게끔
009	여	여	여	여	여
010	코지	곶	코지	코지	코지
011	원/원담/개/갯담		원담	원	멜통
012	물들다	물밀다	물들다	물들다	물들다
013	물싸다	물싸다	물싸다	물싸다	물싸다
<바다동물>					
번호	조사 어휘	표준어	우도	비양도	가파도·마라도
014	멜	멸치	멜	멜	멜
015	고등에	고등어	고등에, 고등어	고등에	고등에
016	고도리	고도리	고도리	고도리	고도리
017	징어리	징어리	징어리	징어리	징어리
018	어랭이	어랭놀래기	어랭이	어랭이	어랭이
019	고생이/고맹이/쿨생이	고생놀래기	코생이	코생이	고맹이
020	웁이	흑돔	웁이	웁이	웁이
021	갈치	갈치	갈치	갈치	갈치
022	구릿/구룻/구르치	뱅에돔	구릿	구룻	구르치(찌)
023	객주리	취치	객주리	객주리[꺾]	객주리
024	각제기	전갱이	각제기	각제기, 가라지	각제기
025	자리	자리돔	자리	자리	자리
026	생선/생성/오토미/오토생성/술라니/술래기/오테미	옥돔	오테미	생성	생선
027	갱이/갱이/궁이	게	갱이	갱이, 게	갱이
028	저드레기/저들레기/게드레기/기드레기	소라게, 집게	게들레기	저드락지	기드레기
029	밥게/밥주리	갯강구	박게, 밥주리	밥주리	밥게

030	구쟁이/구쟁기/구제 기/고동	소라	구쟁이, 고동	구쟁기	구제기
031	쌀구제기/쌀구쟁이		쌀구쟁이	쌀구쟁기	쌀구제기
032	조쿠제기/조쿠쟁이/ 좁쌀구쟁이/좁쌀		좁쌀고동, 쌀방구	조쿠쟁기	조쿠제기
033	베체기/대오살/ 대오삭	거북손	대오삭	베체기	대우살
034	습	말뚝성게	습	습	습
035	귀/구살/성기/귀살	성게	귀/구살/성기	구살	귀살
036	해습/미	해산	해습/미	해습	해습
037	점복/좁복	전복	생복	점복/좁복	점복/좁복
038	조쟁이	조개	조개	조쟁이	어금
039	보말/보멸	고동	보말	보멸	보말
040	수두리(보말)	팽이고동	수두리(보말)	수두리(보말)	수두리(보말)
041	먹보말	밤고동	먹보말	먹보말	먹보말
042	문단지/문테기/문다 드리/문다닥지	눈알고동	돌포말	문드럭지, 문다기	문테기
043	메옹이/메홍이/ 메홍기	두드럭고동	메홍기	메옹이	메옹이
044	오분작/오분제기/ 바르	오분자기	오분작	오분자구	바르, 오분제기
045	군벳/굼벳	군부	군벳	굼벳, 군붓	굼벳
046	군수/굴맹이/ 물토새기	군소	굴맹이	굴맹이	굴맹이
047	물꾸럭/무꾸럭/물게	문어	물게	무꾸럭	물꾸럭
048	비말/베말/쟁베름	애기삿갓조개	쟁베름	베말	베말
049	늘래/닐래	비린내	늘래	늘래	늘래
050	무리다/물다	물다, 물쿠다	물다	무리다	무리다

<바다식물>

번호	조사 어휘	표준어	우도	비양도	가파도·마라도
051	메역	미역	메역	메역	미역
052	메역귀	미역귀	메역귀	메역귀	미역귀
053	우미/천초	우뭇가사리	우미, 천초	우미	우미
054	톳/톨	톳	톨	톳	톳
055	가시리	풀가사리	가시리	가시리	가시리
056	뭍/물망	모자반	뭍	뭍	뭍
057	메역새(썰)	미역쇠	메역새(썰)	메역새(썰)	미역새
058	넙피/넙패/넙페	넙패	넙패	넙피	넙피
059	듬복	듬복	듬복	듬복	*
060	감태	감태	감태	감태	감태
061	청각/정각	청각	정각	정각	청각
062	פר래/פר래	파래	פר래	פר래	פר래
063	츄뭍/먹는뭍		츄뭍	츄뭍	먹는뭍
064	츄פר래		츄פר래	츄פר래	츄פר래
065	개פר래		개פר래	개פר래, 갱이פר래	개פר래
066	주충/지충	지충이	지충	주충	주충

067	근피다/시설올르다/ 근사다		근피다	근피다, 근올르다	근사다
<도구>					
번호	조사 어휘	표준어	우도	비양도	가파도·마라도
068	소중이/소중이/속곳	물웃	속곳	소중기	속곳
069	물수건	물수건	물수건	물수건	물수건
070	눈	물안경	눈, 수경	눈	안경, 앤경
071	테왁/두렁박/두름박	테왁	테왁	테왁	테왁
072	망사리/망시리/ 홍사리/홍아리	망사리	망사리	망사리, 망시리	망사리/망시리
073	조락/조레기		조락	조레기	좁망시리
074	비창	비창	비창	비창	비창
075	호맹이/굴각지/ 굴쟁이	호미	굴각지	굴쟁이	굴쟁이
076	소살/작살	작살	작살	소살	소살
077	질구덕		질구덕	질구덕	큰구덕
078	지들커/지들께	떨감	지들커	지들커	지들커
079	테우/터우/터위/테	떼	터우	테	테
080	공쟁이		공쟁이	공쟁이, 하쫓대	가기대
081	네/노	노	네/노	네/노	네/노
082	이물	이물	이물	이물	이물
083	고물/고불	고물	고불	고물/고불	고불
084	치	키	치	치	치
085	사들	사들	어움대, 자리구물	사들, 자리사들	사들
086	침대/좁대	낚싯대	좁대	좁대	침대
087	니겍/이겍	미끼	니겍/이겍, 밀밥	이겍	니겍
<행위>					
번호	조사 어휘	표준어	우도	비양도	가파도·마라도
088	숨비다		숨비다	숨들다	숨비다
089	즈물다/즈문허다		즈물다	즈물다	즈물다
090	바릇잡다/바릇잡다		바릇잡다	바릇잡다	*
091	후리다	후리다	후리다	후리다	후리다
092	물질/무레질	물질	물질/무레질	물질	물질
093	발레다/바레다	바레다	발레다	바레다	바레다
<음식>					
번호	조사 어휘	표준어	우도	비양도	가파도·마라도
094	자리젓	자리돔젓	자리젓	자리젓	자리젓
095	멜치/멜젓	멸치젓	멜치/멜젓	멜치	멜젓
096	몹치		*	몹치	몹치
097	강이범벅/갱이범벅		*	강이범벅	*
098	프레국	파래국	프레국	프레국	프레국
099	메역국	미역국	메역국	메역국	미역국
100	톨밥/툇밥	툇밥	톨밥	툇밥	툇밥

101	폐법	폐법	폐법	폐법	폐법
<민속>					
번호	조사 어휘	표준어	우도	비양도	가파도·마라도
102	영등할망	영등할망	영등할망	영등할망	영등할망
103	요왕지/요왕제		요왕지	요왕지, 요왕제	요왕제
104	선앙		선앙	선앙	뱃선앙
105	영등굿	영등굿	영등굿	영등굿	영등굿
106	지들이다/제들이다		지들이다	지들이다	제들이다

<부록 2> 제주도 도서지역의 어촌생활어 생태 지수 조사 종합 분석표(단위: %)

[illegible]

026	생선	10.0	20.0	23.3	55.0	75.0	70.0	5.0	5.0	6.7	0.0	0.0	0.0	25.0	0.0	0.0
027	강이	85.0	100.0	100.0	10.0	0.0	0.0	5.0	0.0	0.0	0.0	0.0	0.0	0.0	0.0	0.0
028	거드레기	60.0	95.0	100.0	20.0	0.0	0.0	0.0	5.0	0.0	0.0	0.0	0.0	20.0	0.0	0.0
029	밥게	5.0	75.0	93.3	25.0	10.0	6.7	5.0	10.0	0.0	15.0	0.0	0.0	50.0	5.0	0.0
030	구쟁이	20.0	50.0	83.3	70.0	30.0	3.3	5.0	20.0	13.3	0.0	0.0	0.0	5.0	0.0	0.0
031	쌀구제기	10.0	40.0	43.3	35.0	45.0	36.7	5.0	15.0	10.0	15.0	0.0	0.0	35.0	0.0	10.0
032	조쿠제기	10.0	20.0	60.0	0.0	50.0	26.7	10.0	15.0	6.7	10.0	5.0	3.3	50.0	0.0	3.3
033	배체기	30.0	90.0	100.0	20.0	5.0	0.0	5.0	0.0	0.0	5.0	5.0	0.0	40.0	0.0	0.0
034	숨	90.0	10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	0.0	0.0
035	퀴	20.0	60.0	60.0	65.0	30.0	20.0	10.0	10.0	20.0	0.0	0.0	0.0	5.0	0.0	0.0
036	해숨	10.0	40.0	66.7	65.0	35.0	3.3	5.0	20.0	30.0	5.0	0.0	0.0	15.0	5.0	0.0
037	점복	20.0	65.0	90.0	70.0	35.0	10.0	5.0	0.0	0.0	0.0	0.0	0.0	5.0	0.0	0.0
038	조갱이	5.0	20.0	16.7	25.0	55.0	13.3	25.0	10.0	10.0	0.0	10.0	56.7	45.0	5.0	3.3
039	보말	100.0	10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40	수두리 보말	80.0	95.0	100.0	0.0	0.0	0.0	10.0	5.0	0.0	0.0	0.0	0.0	10.0	0.0	0.0
041	먹보말	80.0	95.0	100.0	5.0	5.0	0.0	5.0	0.0	0.0	0.0	0.0	0.0	10.0	0.0	0.0
042	문닥지	10.0	55.0	76.7	5.0	5.0	10.0	10.0	5.0	0.0	15.0	5.0	3.3	60.0	30.0	10.0
043	매웅이	90.0	95.0	100.0	5.0	0.0	0.0	0.0	5.0	0.0	0.0	0.0	0.0	5.0	0.0	0.0
044	오분작	95.0	95.0	96.7	0.0	0.0	3.3	5.0	5.0	0.0	0.0	0.0	0.0	0.0	0.0	0.0
045	군벳	95.0	10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5.0	0.0	0.0
046	군수	90.0	95.0	100.0	5.0	0.0	0.0	0.0	5.0	0.0	0.0	0.0	0.0	5.0	0.0	0.0
047	물꾸럭	40.0	60.0	86.7	45.0	35.0	3.3	15.0	5.0	10.0	0.0	0.0	0.0	0.0	0.0	0.0
048	비말	90.0	95.0	100.0	0.0	5.0	0.0	0.0	0.0	0.0	5.0	0.0	0.0	5.0	0.0	0.0
049	늘래	55.0	95.0	100.0	10.0	0.0	0.0	10.0	5.0	0.0	0.0	0.0	0.0	25.0	0.0	0.0
050	무리다	20.0	75.0	100.0	20.0	15.0	0.0	15.0	0.0	0.0	0.0	5.0	0.0	45.0	5.0	0.0
051	메역	30.0	75.0	86.7	55.0	15.0	10.0	15.0	10.0	3.3	0.0	0.0	0.0	0.0	0.0	0.0
052	메역귀	30.0	75.0	86.7	55.0	10.0	10.0	5.0	15.0	3.3	0.0	0.0	0.0	15.0	0.0	0.0
053	우미	95.0	95.0	96.7	5.0	0.0	3.3	0.0	5.0	0.0	0.0	0.0	0.0	0.0	0.0	0.0
054	툏	100.0	10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55	가시리	75.0	100.0	100.0	5.0	0.0	0.0	0.0	0.0	0.0	10.0	0.0	0.0	10.0	0.0	0.0
056	몸	95.0	95.0	100.0	0.0	0.0	0.0	0.0	5.0	0.0	0.0	0.0	0.0	5.0	0.0	0.0
057	메역새	25.0	100.0	83.3	20.0	0.0	10.0	10.0	0.0	6.7	20.0	0.0	0.0	25.0	0.0	0.0
058	넙피	20.0	95.0	100.0	40.0	0.0	0.0	5.0	5.0	0.0	10.0	0.0	0.0	25.0	0.0	0.0
059	듬복	60.0	55.0	56.7	10.0	0.0	0.0	5.0	10.0	0.0	0.0	0.0	10.0	25.0	35.0	33.3
060	감태	95.0	100.0	100.0	5.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61	정각	100.0	10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62	포레	10.0	85.0	70.0	70.0	10.0	0.0	10.0	5.0	30.0	0.0	0.0	0.0	10.0	0.0	0.0
063	춤뎌	25.0	50.0	50.0	5.0	30.0	23.3	15.0	15.0	0.0	10.0	0.0	13.3	45.0	5.0	13.3
064	춤꼭레	5.0	30.0	16.7	5.0	40.0	50.0	25.0	15.0	0.0	10.0	5.0	0.0	55.0	10.0	33.3
065	개꼭레	10.0	30.0	86.7	0.0	60.0	6.7	25.0	10.0	3.3	15.0	0.0	3.3	50.0	0.0	0.0

066	주충	45.0	90.0	100.0	10.0	10.0	0.0	5.0	0.0	0.0	15.0	0.0	0.0	25.0	0.0	0.0
067	근괴다	5.0	60.0	86.7	5.0	10.0	13.3	10.0	5.0	0.0	25.0	0.0	0.0	55.0	25.0	0.0
068	소중이	10.0	15.0	10.0	25.0	25.0	30.0	25.0	55.0	60.0	10.0	5.0	0.0	30.0	0.0	0.0
069	물수건	20.0	35.0	13.3	65.0	15.0	26.7	15.0	50.0	60.0	0.0	0.0	0.0	0.0	0.0	0.0
070	눈	20.0	40.0	40.0	60.0	55.0	6.7	5.0	5.0	16.7	0.0	0.0	36.7	15.0	0.0	0.0
071	테왁	100.0	10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72	망사리	95.0	100.0	100.0	0.0	0.0	0.0	0.0	0.0	0.0	5.0	0.0	0.0	0.0	0.0	0.0
073	조락	60.0	65.0	63.3	10.0	30.0	0.0	5.0	0.0	6.7	5.0	0.0	0.0	20.0	5.0	30.0
074	비창	70.0	100.0	100.0	15.0	0.0	0.0	0.0	0.0	0.0	0.0	0.0	0.0	15.0	0.0	0.0
075	호맹이	50.0	70.0	100.0	20.0	25.0	0.0	15.0	0.0	0.0	5.0	5.0	0.0	10.0	0.0	0.0
076	소살	35.0	95.0	83.3	15.0	0.0	16.7	20.0	5.0	0.0	5.0	0.0	0.0	25.0	0.0	0.0
077	질구덕	5.0	45.0	10.0	50.0	15.0	46.7	25.0	40.0	43.3	5.0	0.0	0.0	15.0	0.0	0.0
078	지들커	15.0	30.0	20.0	15.0	25.0	23.3	30.0	45.0	56.7	15.0	0.0	0.0	25.0	0.0	0.0
079	테우	20.0	35.0	50.0	50.0	40.0	6.7	10.0	20.0	43.3	5.0	5.0	0.0	15.0	0.0	0.0
080	공쟁이	5.0	25.0	43.3	10.0	10.0	3.3	15.0	45.0	43.3	10.0	5.0	0.0	60.0	15.0	10.0
081	네	60.0	65.0	60.0	5.0	15.0	0.0	5.0	20.0	40.0	5.0	0.0	0.0	25.0	0.0	0.0
082	이물	40.0	65.0	100.0	15.0	20.0	0.0	10.0	10.0	0.0	10.0	0.0	0.0	25.0	5.0	0.0
083	고물	40.0	65.0	100.0	5.0	15.0	0.0	10.0	15.0	0.0	10.0	0.0	0.0	35.0	5.0	0.0
084	치	20.0	70.0	100.0	40.0	5.0	0.0	15.0	25.0	0.0	0.0	0.0	0.0	25.0	0.0	0.0
085	사둘	10.0	40.0	46.7	5.0	0.0	13.3	15.0	10.0	6.7	5.0	10.0	23.3	65.0	40.0	10.0
086	참대	60.0	85.0	90.0	15.0	0.0	10.0	15.0	15.0	0.0	5.0	0.0	0.0	5.0	0.0	0.0
087	니깍	75.0	90.0	100.0	5.0	5.0	0.0	15.0	5.0	0.0	0.0	0.0	0.0	5.0	0.0	0.0
088	숨비다	55.0	85.0	93.3	10.0	5.0	0.0	0.0	5.0	3.3	10.0	5.0	3.3	25.0	0.0	0.0
089	즈물다	65.0	95.0	100.0	10.0	5.0	0.0	5.0	0.0	0.0	5.0	0.0	0.0	15.0	0.0	0.0
090	바릇잡다	10.0	50.0	53.3	50.0	35.0	6.7	5.0	10.0	6.7	10.0	5.0	33.3	25.0	0.0	0.0
091	후리다	25.0	30.0	30.0	15.0	25.0	30.0	15.0	25.0	30.0	20.0	10.0	10.0	25.0	10.0	0.0
092	물질	95.0	100.0	100.0	5.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93	발레다	25.0	55.0	93.3	20.0	10.0	6.7	5.0	15.0	0.0	5.0	5.0	0.0	45.0	15.0	0.0
094	자리젓	100.0	10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95	멜젓	40.0	100.0	100.0	6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96	몸치	25.0	45.0	43.3	5.0	10.0	3.3	5.0	5.0	6.7	10.0	0.0	20.0	55.0	40.0	26.7
097	강이범벅	10.0	15.0	6.7	50.0	30.0	46.7	10.0	30.0	6.7	0.0	5.0	6.7	30.0	20.0	33.3
098	프레국	10.0	45.0	43.3	65.0	20.0	13.3	10.0	20.0	43.3	0.0	15.0	0.0	15.0	0.0	0.0
099	메역국	40.0	75.0	93.3	35.0	20.0	6.7	25.0	5.0	0.0	0.0	0.0	0.0	0.0	0.0	0.0
100	톨밥	20.0	40.0	60.0	50.0	30.0	0.0	15.0	25.0	40.0	0.0	5.0	0.0	5.0	0.0	0.0
101	폐밥	5.0	5.0	3.3	15.0	50.0	23.3	0.0	25.0	43.3	25.0	5.0	0.0	55.0	15.0	30.0
102	영등할망	80.0	95.0	100.0	5.0	0.0	0.0	0.0	0.0	0.0	5.0	5.0	0.0	10.0	0.0	0.0
103	요왕지	30.0	75.0	100.0	10.0	10.0	0.0	0.0	0.0	0.0	20.0	10.0	0.0	40.0	5.0	0.0
104	선앙	25.0	70.0	100.0	20.0	20.0	0.0	5.0	5.0	0.0	10.0	5.0	0.0	40.0	0.0	0.0
105	영등굿	80.0	90.0	100.0	5.0	5.0	0.0	0.0	5.0	0.0	5.0	0.0	0.0	10.0	0.0	0.0
106	지들이다	30.0	75.0	100.0	15.0	15.0	0.0	15.0	5.0	0.0	5.0	0.0	0.0	35.0	5.0	0.0

참고문헌

- 강영봉(1993), 『제주도방언의 동물 이름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논문, 경기대학교.
- 강영봉·김동윤·김순자(2010), 『문학 속의 제주방언』, 글누림.
- 강영봉 외(2011), 『2011년도 제주지역어 조사보고서』, 국립국어원.
- 강정희(2010), 『지역 방언의 생태학적 연구 방법』, 『최명옥 선생 정년 퇴임 기념 국어학 논총』, 최명옥 선생 정년 퇴임 기념 준비위원회.
- _____ (2007),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제주 사회 변화와 제주방언의 변화』, 『새국어생활』 제17권 제4호, 국립국어원.
- _____ (2010), 『제주방언 혼성형에 대한 생태학적 고찰』, 『방언학』 10집, 한국방언학회.
- _____ (2011), 『제주방언 연구의 생태 언어학적 가치』, 『제주도연구』 제36집.
- 강정희·김순자(2010), 『2010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보고서 5』(비양도의 고기잡이), 국립국어원·한남대학교.
- _____ (2011), 『2011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보고서 5』(해초류), 국립국어원·한남대학교.
- 강정희 외(2010), 『2010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보고서 1』(비양도의 어촌생활어 기초어휘), 국립국어원·한남대학교.
- _____ (2011), 『2011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보고서 1』(우도의 어촌생활어 기초어휘), 국립국어원·한남대학교.
- 국립국어원·제주대학교국어문화원(2008), 『제주지역어 생태 지수 조사 보고서』.
- 권오길·박갑남·이준상 공저(1993), 『원색 한국 패류도감』, 아카데미서적.
- 김순자(2008), 『제주 바다의 소리·고등·전복 이름(1)』, 『영주어문』 15집, 영주어문학회.
- _____ (2009), 『해녀·어부·민속주』(제주도의 민족생활어), 글누림.
- _____ (2010), 『제주도방언의 언어지리학적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논문.
- 김영돈(1999), 『한국의 해녀』, 민속원.
- 남광우 편저(1997/2009), 『고어사전』, 교학사.
- 데이비드 크리스털 지음·권루시안 옮김(2005), 『언어의 죽음』, 이론과 실천.
- 박용후(1960), 『제주방언연구』, 동원사.
- 박육현 옮김(Alwin Fill 지음)(1999/1993), 『생태 언어학』, 한국문화사.

- 북제주군(2000), 『북제주군지』 상.
- 석주명(1947), 『제주도방언집』, 서울신문사출판부.
- 송상조(2007), 『제주말큰사전』, 한국문화사.
- 우도지편찬위원회, 『우도지』, 우도지편찬위원회.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회(1973), 『국문학보』 제5집.
- _____ (1974), 『국문학보』 제6집.
- 제주대학교국어문화원 외(2010), 『제주 도민의 제주어 사용 실태 조사 보고서』.
- 제주도(2006), 『제주도지』 제3권.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2001), 『가파도 학술 조사 보고서』.
- _____ (2003), 『비양도 학술 조사 보고서』.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5), 『한국방언자료집 IX: 제주도편』.
- 현평효(1962), 『제주도방언연구』(자료편), 정연사.
- 현평효 외(2009), 『개정증보제주어사전』, 제주특별자치도.
- 홍승호 외(2009), 『제주바다 감각류 체험학습 길잡이』, 도서출판 한글.

Abstract

An Ecological Study of Language in Islets near Jeju Island

- Ocean Vocabularies in U, Biyang, Gapa and Mara Islet

Kim, Soon-Ja*

Vocabularies about ocean creatures (ocean animals and ocean plants) in islets near Jeju Island are searched and systematized ecologically. 4 islets near Jeju Island, U-do, Biyang-do, Gapa-do and Mara-do, are divided into three groups.

Vocabularies about sea creatures are searched for this study. After that, 51 words are chosen including 35 words about ocean animals and 16 words about ocean plants. Then the survey form with 106 questions is made from the result. The survey for three age groups is conducted to check ecological index. The age groups are the thirties-forties, the fifties and over seventies. There are not so many people in their thirties in these islets so one groups have to be consisted of the thirties and forties.

The details of the result are below.

age dialect uses	30~40s	50s	over 70s
100%	6 words(11.7%)	15 words (29.4%)	27 words (52.9%)
under 50%	14 words (27.5%)	3 words (5.9%)	7 words (13.7%)
don't understand	37 words (72.5%)	9 words (eg. bojegi)	6 words (eg. deumbuk)

* Lecturer, Jeju National University.

The result shows younger generation doesn't understand dialect more and this means their ecological index is low. There are a few young people in their thirties or forties and they usually don't have fishery jobs so it quickens extinction of the language.

That is why we need a methodical approach to extinct or endangered vocabularies about sea creatures and endangered Jeju dialect.

Key Words : Jeju Island, language in Islets near Jeju Island, ecological index, U islet, Biyang islet, Gapa islet, Mara islet

교신 : 김순자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아라일동 1,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8203호 국어문화원
(E-mail : sj4765@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3. 5. 30.

심사완료일 2013. 6. 23.

게재확정일 2013. 6. 25.